

‘췌줄이·불들이·판세...’ -아이 지키고픈 부모 마음 담겨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췌줄이, 줄이, 불들이, 판세, 꼭지 등이 그런 이름입니다. 선생님의 이웃 동네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그런 옛날 이름이 무슨 방언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전통방언, 즉 1930년대 표준말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써 온 말도 방언의 한 부류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 같은 대도시와 달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시골에서 쓰던 이름이야말로 귀중한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집에 자녀가 5~6명은 보통이고 많게는 10명 남짓 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홍역이나 천연두·학질 같은 질병으로 어린 목숨들이 수없이 죽어 갔습니다. 부모들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낼 것인가?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췌줄이’와 ‘줄이’는 쇠줄과 닳줄처럼 튼튼하고 길게 살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불들이’란 이름에는 내 아이를 저 세상에 보내지 않고 불들어 두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판세’는 아이를 팔면 오래 산다는 속설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때 ‘판다’는 것은 돈을 받고 건넨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에게 의모(義母·의로 맺은 어머니)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판자’ ‘판숙’ ‘판돌’ ‘판호’ 등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편 ‘꼭지’와 ‘막달이’는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된 이름이다. 필자가 살던 마을에도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여섯 자녀는 넷째만 빼고 모두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이면 외롭기도 하고, 혹시나 잘못되면 중간에 대가 끊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하나 더 필요해 막내딸 이름을 꼭지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지는 무엇일까. 수박 꼭지, 고추 꼭지, 냄비 꼭지 등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남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 이름을 꼭지로 지어서 다음번에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막달이’ 또는 ‘막딸이’란 이름에 담긴 뜻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제발 마지막 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시대상을 그대로 담은 이런 재미난 이름들을 앞으로는 영원히 들을 수도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1 ★ 옛 이름도 전통방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옛 이름으로 사용된 전통방언과 그 뜻을 알아봅시다.

씨줄이 -

붙들이 -

() -

() -

() -

2) 다양한 형태의 방언이 이름으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 우리 주변에 방언과 관련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 써 봅시다.

3 ★ '사람이름속에'를 읽고 느낀점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spiral binding at the top, intended for drawing or writing. The spiral binding is represented by a series of small circles along the top edge of the rectangle.